## 계엄 선포서 탄핵 가결까지 긴박했던 12일…광주일보 '호외'로 함께하다













## "5·18 계엄 트라우마와 분노 속 호외 만든 광주일보 기자들"

日 니시니혼신문 3일 제작 과정 보도 계엄군 들이닥칠 위기감 속 빠른 제작 5·18 아픈 역사도 사진과 함께 실어

"광주일보에는 (계엄)선언 직후 30여 명의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동시에 전달된 계엄포고령 문구가 긴장을 더하게 했다. '모든 보도와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선언 30분 후부터는 온라인에 속보기사를 내보내면서 동시에 호외제작 에 나섰지만, 계엄군이 언제 들어 닥칠지 모를 일이 었다. 출입문을 폐쇄하고 기자들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다."

지난 12일 광주일보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

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이후의 편집국 상황을 취재한 니시니혼신문이 지난 14일 온라인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사진〉이들 신문은 계엄 상황에서 호외를 만들게 된 배경, 제작 과정의 긴장감, 기자들의 각오, 5·18 민주화운동 당시 12 일간 발행하지 못했던 광주일보의 아픈 역사 등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실었다.

"계엄 하에서 정권 비판 기사를 쓸 경우 신변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도 있어 광주일보는 기사에 기자 이름을 쓰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었다. 결국 기자들의 이름을 다 쓰기로 결정했다. 정치부 김해나 기자는 '체포된다면 체포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혼란 상황이었던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결의 안의 채택이 무사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군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 최권일 편집국장은 1시

간 안에 (호외)지면 제작을 끝내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4일 새벽 1시 1분 계엄해제결의안이 국

회에서 가결된 뒤 새벽 4시 30분 윤 대통령이 해제

를 선언하자 기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새벽까지 온라인으로 기사를 계속 전송했다"고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12일간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의 1980년 6월 2일 지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다. 신문들은 '뼈

면 광고가 실린 당시 지면을 사진으로 게재했다. "광주일보의 전신 전남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3 일 후부터 12일간 계엄령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 다. 재발행된 신문에서는 분함과 반성을 담은 사고

를 게재했다. 그 후 검열로 지면 일부가 공백으로 나

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를 제목으로 한 사고와

'광주사태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만 쓴 1

가는 경우가 계속되었다. 광주일보에는 당시 기자들이 사장에게 제출한 사표가 남아있다.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기자들은 없지만, 최 편집국장은 그 분노와 공포 그리고그것을 넘어서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생각은 후배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 이후 계엄령에 의한 보도통제로 검열을 받은 기사가 모두 1만1600건, 이 가운데 삭제된 기사가 1700건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한편 니시니혼(서일본)신문은 1877년 창간해 후 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 현 등 일본 서부지역에서 발행되는 대규모 지역신문 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반갑다, 광주일보 호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광주·전남 지역의 종합 일간지인 광주일보가 관련 소식을 전하는 호외를 발행, 배포했다. 이날 동구 금남로를 찾은 학생들이 호외를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尹, 비상계엄 도박으로 몰락 자초…야당에 '탄핵 스모킹건' 제공"

외신들 윤석열 탄핵안 가결 보도 NYT "김 여사 문제로 정치적 곤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 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 을 내놓고 있다.

외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쪽을 선택해 몰락을 자초했다"

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스스로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점철됐으며 탄핵은 그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상 밖 전개였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각종 스캔들로 얼룩진 윤 대통령의 임기에 가장 큰 부담은 김 여사 문제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NYT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곤란 중 상당 부분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명품백 수수와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상당 부분이 김 여사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

도 정권에 타격을 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를 겪은 청년층이 탄핵 촉구 시위의 주축이 됐다고 도 분석했다.

외신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설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소식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야당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과 중국언론도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등이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등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중계하기도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역시중문과 영문으로 각각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중국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가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했다.



